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름다운 자원봉사

요즘 중현기도원은 24개 교구 성도들로 북적거립니다. 기도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일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의 텃밭을 일구는 자원봉사에 한 마음(빌 2:2)으로 맘 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현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사회와 권사회는 각각 중현 동산과 중현기도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남도 함양까지 가서 교회 소유의 텃밭을 관리하는 데 안수집사들이 봉사했습니다.

주일에는 이곳저곳에서 녹색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열 살 남짓의 학생들에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빗자루와 걸레,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말뿐인 자기부인이 아닌,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건과 상황이 되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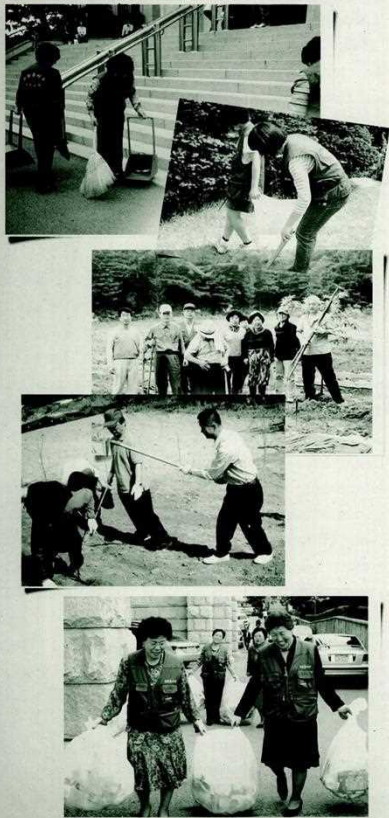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의로써 율법에 근거한 의가 아니다(롬 3:9,19~22).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 구원자를 통하신 새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떠나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시는 관계이다(요 3:16,36; 고후 5:1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은 율법과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믿고 있었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놓쳤다. 율법을 행함으로서 성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 값을 위하여 자물하게 하시므로, 우리로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뿐이다(고후 5:21).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롬 3:24). 인간의 그 무엇,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은총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명백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며 인간들 사이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의를 나타내셨을 때에도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차별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떼어 놓을 수가 없다(고전 1:30).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 죄와 사망의 사슬에 붙잡아 두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위치, 의롭다 하심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실존적인 현실이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롬 3:31). 율법 그 자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음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을 증거 해 준다.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 자신들이 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롬 3:19~20). 율법을 높이며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결국은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비록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것 같아 보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룬다. 믿음과 믿음으로 인한 의는 모든 행위로 인한 인간의 자랑을 제거하며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결과를 완성시킨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며 율법의 완성이 된다. 아멘.



THE HELPER, THE HOLY SPIRIT

*⁽¹⁶⁾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¹⁷⁾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²⁶⁾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John 14:16-17,26)*

Who is the Holy Spirit? The Bible tells us that He is God, just as the Father is God and as the Son is God, He is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Some people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about Him impersonally, and others falsely teach that He is only a force. The Holy Spirit has an intellect,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Rom. 8:27). The Holy Spirit has emotion,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Eph. 4:30). The Holy Spirit has a will, "But one and the same Spirit works all these things, distributing to each one individually just as He wills"(1Cor. 12:11). His intellect, emotion, and will display the characters of His personality. So, what does the Holy Spirit do?

The Holy Spirit comforts God's children.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Jn. 14:16). Jesus Christ told His disciples that the Holy Spirit was a Helper. In this word Helper are the ideas of advising, exhorting, comforting, strengthening, interceding and encouraging. In other words,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know that although the comfort of His physical presence would be leaving them, God was giving them another form of comfort through His Holy Spirit. As human beings, we need the kind of comfort that only the Holy Spirit can give. We need the Helper to see us through times of separation from loved ones. We need the Helper to be with us when tears are near. We need the Helper to comfort us when we feel alone, sad, and sick. We need the Helper to turn to when others turn against us. We need God the Helper to help us when death has touched someone near to us and when it comes upon us. We need the Helper to keep us on the narrow pathway to heaven because no one can walk this special road without Him.

The Holy Spirit counsels God's children.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Jn. 14:26). Life is perplexing, and we need a counselor to help us understand God's will. Many things in this troubled world confuse us, perhaps even today you are baffled over something. Jesus Christ was a counselor to His disciple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and since His ascension, the Holy Spirit now teaches us. Have you ever had a tutor before? Their expertise can really open up your world of understanding. The Holy Spirit is our personal tutor and He teaches us continually. He teaches us the Word of God, "But know

this first of all,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for no prophecy was ever made by an act of human will, but men moved by the Holy Spirit spoke from God"(2Pet. 1:20-21). The Holy Spirit teaches us truth,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Mine and will disclose it to you. All things that the Father has are Mine; therefore I said that He takes of Mine and will disclose it to you"(Jn. 16:13-15). The Holy Spirit teaches us 'all' things! It's sad that so many of today's Christians rely upon their own talent and do not use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onvicts God's children. "And He, when He comes, will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concerning sin, 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and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the Father and you no longer see Me; and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Jn. 16:8-11). The Holy Spirit convicts of sin by probing our conscience. When you feel guilty, the Holy Spirit is at work in your heart. Conviction comes before conversion, and correction before comfort. Indeed, we have all failed to live the perfect life. Christ demonstrated the perfect life, but we fall way short of such perfection,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Rom. 3:23). The consequence for any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Rom. 6:23). The Holy Spirit also convicts us of judgment. After death the judgment of God comes, which no one can delay or avoid,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Heb. 9:27). Please prepare yourself to meet Jesus Christ in the terrible coming judgment, "Therefore thus I will do to you, O Israel; because I will do this to you, prepare to meet your God, O Israel"(Amos 4:12). The purpose of conviction is to bring us to Christ.

My dear friend, what is the Holy Spirit saying to you? Please respond to His conviction and receive His comfort and counsel. Unbelievers do not have access to the Holy Spirit,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Jn. 14:17). Next week we will be celebrating Pentecost Day. We should know what the Holy Spirit is doing!

보혜사 성령

- ⁽¹⁶⁾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¹⁷⁾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²⁶⁾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6~17,26)



김성완 목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성이 없는 분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합니다. 또 성령님을 단지 어떤 힘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 8:27).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 4:30).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전 12:11). 지성, 감정, 의지는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6).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충고하다, 간곡히 타이르다, 위로하다, 기운을 북돋우다, 중재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또 다른 형태로 위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함께 위로해 줄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병들 때 우리를 위로해 줄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기밀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거나 우리 자신에게 다쳐줄 때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를 지켜 줄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그 누구도 이 특별한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조언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조언자가 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26).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사역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조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가정교사를 둔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전문적인 가르침은 확실히 이해의 폭을 넓혀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교사이시며 끝

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0~21).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3~15).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 16:8~11). 성령님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뉘우침 뒤에 회심이 따르고 징계 후에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삶을 사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완전함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다가올 두려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약 4:12).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조언을 받으십시오. 불신자들은 성령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7). 다음 주일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강해 7

가장 큰 환난 (13:14~23)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매우 놀랐다. 물론 제자들도 매우 놀랐으며 이후에 제자들은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다(막 13:4). 이에 예수님은 재난의 때가 그 징조

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장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하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말씀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씀 안에서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재난의 때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환난의 때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화가 있으리라도"(막 13:14~17). 현재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멸망의 가증한 것이 넘쳐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인간을 위한 복음을 미혹당하고 있다. 미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단 9:27, 11:31, 12:11).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살후 2:3~4).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요일 2:18).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환난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것이다. 복

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타협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평안을 외친다. 핍박은 없으며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참혹한 핍박을 통과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뿐이다. 주님의 말씀(창 19:17 ; 눅 23:29)을 붙들며 간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막 13:18). 환난의 때가 임박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막 13:19~20).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며 이를 믿는 믿음뿐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혼란스러는 안 된다(막 13:21~22). 택하신 자들을 호위하는 천사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자(단 12:1).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명료한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막 13:23). 주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매년 말씀에서 떠나 핍박과 번망으로 일관한다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영영 상벌 주리." 악한 영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주장에 따르게 된다. 결국 우리는 가장 큰 환난의 때에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하지 말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생생생이다." 아멘.

* 매주 필요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청년1부에서 단기선교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12월 초부터 선교를 준비했다. 팀원이 모자라서 팀이 구성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모여서 훈련부터 시작했다. 나에게 총무라는 직책이 주어지면서 많은 근심 걱정에 빠졌다. 첫 번째 문제는 팀원 부족으로 팀 해체의 위기에 봉착하여 새로운 팀원을 영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선교날짜가 임박해서는 팀장교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도와 순종으로 교비를 잘 낼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선교지 선정의 문제였다. 인원부족으로 팀선정이 되지 않아 일단 A국을 소망하며 기도와 언어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위원회에서 B국으로 가라 하였다.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려 했는데 A국은 언어소통이 되지 않고 공안의 감시가 심해서 갈 수 없다는 말에 오히려 A국을 향한 소망이 생겼다. 언어는 연습이 부족해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이고, 공안은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팀훈련을 정말 열심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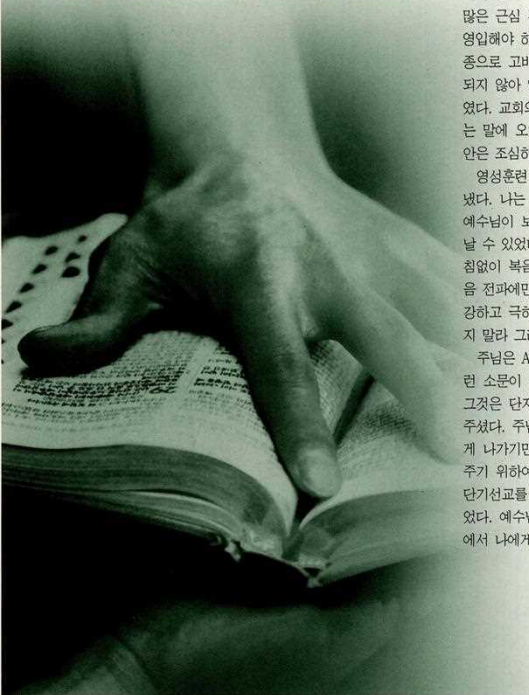
영성훈련 5회와 28회의 팀훈련을 하는 동안 팀원들은 조금씩 지쳐갔고,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드러냈다. 나는 화가 났으나 눈물로 기도하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무한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 결국 우리는 A국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을 만나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으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십자가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사역지는 주님이 준비하신 감동의 땅이었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주님은 A국의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셨음을 알게 하셨다. 어디로부터 그런 소문이 생긴건지 A국은 공안의 감시 때문에 언젠가부터 복음전파가 두려운 땅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무지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주님께서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알게 해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항상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나가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할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은 이번 단기선교에서 나에게 들뜬 주셨다. 언제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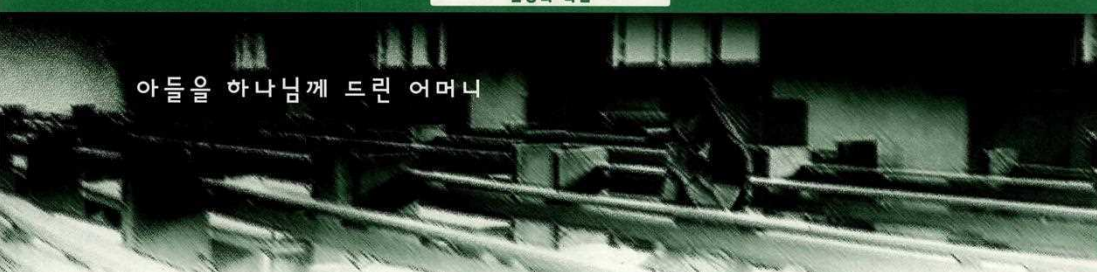
이윤정(청년1부 1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4일(월) - 5월 14일(목)	18교구 1팀	김성천
5월 7일(목) - 5월 14일(목)	7교구 1팀	송한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주과총현〉에서 다음 주 예배안대의 설교제목을 보았을 때부터 나는 수요예배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사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나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며 달기를 바랐던 믿음의 선진인 한나에 관한 설교라니 벌써부터 흥분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에게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동안 나의 일들을 하기 위해 봉사하는커녕 예배도 겨우 의무감으로 드려왔던 나였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위해 늘 기도하셨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속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예수님을 만났고 눈물로 회개했으면 이런 설교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다. 오늘 찬송은 마치 내 신앙고백과 같았다. “날마다 주와 떨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위대하다. 나를 위한 어머니의 오랜 기도 가 결국 응답 받았던 것처럼,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충현의 많은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뿐이다.

성령을 잃으면 잃을수록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한나가 큰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느낀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했지만 무자함으로 늘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 기도도 한 두 번이지 나 같으면 몇 년을 지나는 동안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 분명하다.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나는 그저 기도했다. 슬허한 것처럼 보일만큼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몇 번을 다시 물어다 보니 힘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흐른다. 나의 믿음 없음에, 한나의 믿음을 있음에... 회개하고 다짐한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

시기를.

한나의 믿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이다. 그렇게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 천하보다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주님께 서원했으나 담연히 잊기 아난가?”라고 합리화 해 보아도,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생각하면 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교회에서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면 내 아이가 아남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다 있다. 보통 믿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나는 기쁘게 했던 것이다.

한나께서는 그런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한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했으며, 하나님께 기쁘게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긴 했지만 늘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고, 해내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한다. 내 일이, 아니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며 축복임을 믿는다. 더불어 내가 앞으로 이를 가정에 관한 소망이 생긴다. 오늘 예배 시 호산나 찬양의 찬양처럼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이 되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신 의식을 간절히 기도한다.

최선미(청년1부)

갈등과 순종

한 해 동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매해 시월이 되면 “이번 아이들만 올려 보내고 내년엔 좀 쉬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매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중등1,2부를 오가며 섬겨온 지도 벌써 칠 년이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인데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칠 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으니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저의 모습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선생님을, 또 아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알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그렇듯이 지난 해도 어김없이 시월은 가고, 새 친구들을 만나는 십일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들일까?” 설렘으로 기다리는데 이제 웬일입니까? 올해는 신입과를 말으라고 하십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팔팔매는 제게 신임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해마다 교회에 새로 나오는 학생들이 오십여 명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사를 온 학생은 소수이고 친구들의 전도로 교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주 그들과 전화를 하고 안 나오는 학생들은 찾아가고, 그래서 겨우 등반을 시키기만 다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저 어린 생명들을 어찌하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없어 “교사를 그만둘까 아니면 반 담임으로 옮길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마음과 시간을 내어놓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 용서하소서. 죄 짓는 일 외에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죄인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고민하며 갈등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며 시작한 중등1부 신입과 교사생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볼 때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 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벌써 오십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회에 등록했고, 이 중의 2/3가 등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찾아오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희(교사, 중등1부)

얼마나 교만당어리었는지...

십삼 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총현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다. 작은 교회에 다녔던 나에겐 이백 명이 넘는 찬양대원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봉사했던 차현교회에서도 봉사할 곳은 당연히 찬양대였다. 남들보다 찬양양보를 조금 더 잘 보고 음정 박자까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인강적인 생각에 우월감을 가졌다. 피곤하고 잠이 많다는 이유로 연습시간에 늦었고,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찬양연습을 할 때에도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난 음정이 정확하고 박지도 정확하니까 내가 크게 부르면 나를 따라다 서를 잘하겠지.’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맘껏 소리를 내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 그 때까지만 해도 습관적으로 부르던 그 소리는 찬양이 아닌 노래에 불과했다. 음악적인 기교와 음정 박자에 맞춘 좋은 소리만으로 드러나 댔던. 준비되지 않은 찬양과 가사 외우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었다. 이런 교만한 모습들은 금요일찬양집회에 나오며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다.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 속에 새겨졌다. 부르던 부를수록 은혜가 넘치는 나의 고백이 되었고, 눈앞이 뿌연게 흐려지고 목이 메어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 없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지내느라 말씀과 기도생활에 게을렀던 나에게 찬양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었고, 나의 마음을 열어 주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격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힘들고 피곤에 지친 나에게 찬양은 새 힘과 참 소망을 준다. 그 시간을 통하여 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금요일찬양집회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긴다. “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주님의 것이니.”

민준주(집사, 8교구)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1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사도행전 2:1~4)

오순절 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님은 오직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개 인적으로 찾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성령강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첫 경험을 했던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갖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배신당함, 십자가,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 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 28:18~20).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세례를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행 1:14) 힘썼습니다. 집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행 2:2~4). 이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의심과 불확신, 실패로 위축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증거와 확신,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강림의 중요한 목적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주는 것입니다(행 2:38, 41~47). 부흥은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항상 밤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주님은 명령하셨건만 돌이켜보면 불평 불만의 삶이 더욱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풍성한 감사의 조건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일찍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의 발자욱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배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 시골의 어린 손님이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사경리'를 외워, 비를 맞으며 전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청년의 때

수화 칼럼 ① 사도 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390년 쯤부터 사용되었으나 그 내용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훨씬 더 일찍부터 예배에서 고백해 왔다. 2세기부터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세례받는 새 신자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묻는 말에 "예,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세례를 주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한 기독교의 신앙, 즉 복음의 진리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교회의 신앙고백들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신앙고백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수화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우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자.



에 기도한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새벽모임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배를 주셔서 아들을 낳으시면 '천양'이라 하고, 딸을 낳으시면 '찬미'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고백이 일곱 해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88올림픽이 끝나고 이십 대의 끝자락에 서울에 올라와 천주교에 첫발을 디뎠으나 십여 년이 넘게 봉사는 않고 예배에만 참석하다 보니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서 방황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깨닫으신 주님의 음성이 가슴을 두드렸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첫사람을 기억하며 지금에서야 중등2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주님은 약속대로 두 자녀, 천양과 찬미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직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핑계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투성이인 나약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매주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들의 이름대로 주님을 향한 천양과 찬미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흥문(집사, 12교구)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을 키우며 현재에 만족하는 가정의 주부이며, 한때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철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을 듭니다. 일곱 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4년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좋아서 다녔던 교회,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받고, 세상에선 돈으로 상처 받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 낙담한 믿음으로 인해 사탄의 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볼줄도 않고 오히려 불신만 쌓아 바라색인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여 우울증에 걸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똑똑똑...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상처를 감싸 안으시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 년 동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 사탄의 영에 빠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심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강하게 변하여 교인이 말을 걸면 냉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놓지 못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교회로 일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똑똑똑... 2008년 12월, 네 번째 찾은 흥천교회. 교회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스스로 발걸음이 새신자 등록하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한두 달 듣다가 교인 중에 조금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며 대화기록을 권유하면 되었던 저였습다. 아마도 주님이 더이상 제 어리석음과 방황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때가 되어 흥천교회로 이끄셨나 봅니다. 이런 제 마음이 주님께 문을 열어 열지 않지만 예수님께 다가갔습다.

똑똑똑... "어서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아~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당선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느낀 이 따뜻한 감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제 귀에 들려오는 건 무엇인지... 이 모든 답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내 맘의 문을 열어 바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 어리석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눈 뜬 맹인에게 영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저에게 힘든 고난을 주신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병사를 네 명이나 저에게 주셔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우셨습니다. 교인에게 받은 상처를 다시 교인으로 인해 치유해 주신 것을 육 년 만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든든한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자녀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악한 습관을 버리고 사탄의 간사한 꾀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의 악의 영들과 싸우기 원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녀가 되겠다는 것과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이 세상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하고 가슴 아프게 사랑합니다.

강은성(성도, 새가족인양목)



청지기칼럼

창세 전에 예비된 은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형의 강권에 못 이겨 겨울성경학교에 참석을 하였다. 이는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차라리 따뜻한 방안에 있을 걸...'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매일 발걸음은 교회로 옮겨졌고 성경학교를 마치고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었다. 그후에도 가끔은 성경학교가 열리면 참석하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내가 교회에 나갔는지 까마득한 추억이 되어 버렸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성장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 언젠가 성경학교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고, 혹독한 군생활에서 위로를 받아 그후로 계속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계속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으나 돌아보면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타고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당하고 겪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생각할수록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놀랄 수밖에 없다. 계속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군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실 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백성을 불러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어 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할 뿐이다.



박강식(장로, 6교구장)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29	바불	25	외선부	이득혜(5)	749	서아진	8	청년1부	김옥자(18)
730	이선봉	4	청년1부	이봉선(4)	750	차세미라	17	대학부	차봉순(9)
731	임동훈	8	중등1부	김학산(2)	751	배영미	2	장년1부	민정순(24)
732	현이윤	25	외선부	나영실(17)	752	조수정	2	청년1부	강준재(2)
733	신근보	6	고등부	김영혜(13)	753	김희숙	2	청년1부	강준재(2)
734	방준호	8	중등1부	최광현(2)	754	임미정	10	장년4부	임양자(7)
735	정세이	13	유년부	김승환(2)	755	김옥수	22	장년2부	성지현(18)
736	김기성	7	장년1부	김진선(7)	756	이민주	4	장년1부	남영순(4)
737	이순례	18		이성신(18)	757	함정순	12	소양부	오재일(12)
738	박지은	8	중등3부	남용철(8)	758	한명재	12	장년2부	한숙(12)
739	권순관	9	청년3부	안노수(10)	759	현대영	20	대학부	서수길(22)
740	박미연	9	청년2부	최희경(9)	760	김용옥	12	청년1부	김영모(4)
741	이윤학	8	중등1부	변성숙(11)	761	황미연	19	장년3부	배소윤(20)
742	이정환	13	청년1부	구영희(24)	762	전준순	3	장년2부	이한복(1)
743	이경호	16	청년1부	전삼진(2)	763	정경아	14	장년1부	리병순(14)
744	조운상	1	청년1부	인지우(1)	764	최희주	22	대학부	이영선(22)
745	조도영	20	청년1부	최하자(20)	765	문해빈	17	대학부	김원희(17)
746	정형준	20	청년2부	황주옥(14)	766	강진구	12	대학부	이슬기(12)
747	한효정	10	청년1부	이창호(11)	767	허경명	2	청년2부	김점례(2)
748	이성심	2	장년2부	김경복(4)					

* 흥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00